

한대(漢代) 노인봉양(養老) 문화와 그 한반도 전파

中國社會科學院古代史研究所 趙凱

한대에 이르러 통치자는 “효(孝)로써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以孝治天下).”라는 이념을 강조하여 노인봉양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이 시기에 제정된 ‘수육법(受鬻法)’과 ‘고년사왕장(高年賜王杖)’ 등 제도는 후세에 이르러서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유가의 사상에 기반하여 제정되고 그 사회실천에서 형성된 노인봉양의 문화는 후세의 중국과 그 밖의 문화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사역하고, 연장자는 건장한 젊은이를 두려워한다(少者使長, 長者畏壯).”,²³ “오랑캐의 풍속은 [연장자가] 젊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업신여긴다(蠻夷之俗, 畏壯侮老).”²⁴ 등 말로 화하(華夏) 이외 지역의 소수민족 노인봉양 문화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동북쪽에 사는 조선민족에 대해서만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이 인(仁)을 주된 특징으로 한 인성을 품부받았기 때문에, 유가 사상과 서로 합치하여 노인봉양 문화의 지역적 전파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믿어 왔다는 것이다.

1. 노인봉양의 예의를 드러내서 밝혀야 나라가 흥성한다.

한대 사람의 관념 속에서, 노인봉양에 관한 국가적-사회적 정책은 제왕 통치의 실적, 국가의 성쇠, 풍속의 올바른 등과 모두 직결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국가는 다스려지고 세상이 온전하게 존속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세상도 쇠퇴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설원(說苑)』 「군도(君道)」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상(商)의〕 고종(高宗)은 무정(武丁)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高) 종주로 삼았기(宗) 때문에, 고종이라고 칭하였다. 탕왕(成湯) 이후로 선왕의 도(道)가 결손되고, 형법이 지켜지지 않

²³ 『呂氏春秋』, 「恃君覽」, “少者使長, 長者畏壯.”

²⁴ 『後漢書』, 「班超傳」, “蠻夷之俗, 畏壯侮老.”

게 되니(違犯), 뽕나무와 닥나무(桑穀)가 모두 조정에서 자라나게 되어 7일이 지나자 두 팔을 맞잡아 에워쌀 정도로 커졌다(大拱). [그러자] 무정은 재상을 불러 그 원인을 물으니, 재상이 말하였다. “저는 비록 그 원인을 알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기(祖己)에게 물으니 ‘뽕나무와 닥나무는 [본래] 들에서 자라는 초목인데, [지금] 조정에서 자라게 되니, 나라가 [장차] 멸망하기를 시사하는 것인가?’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정이 놀라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으며, 선왕의 정치를 생각하여 멸망해가는 제후국을 일으키고, 제사가 끊긴 세가 귀족을 존속하게 하며, 은거한 현인을 등용하고, 노인 봉양의 예의를 드러내 밝혔다. 3년이 지난 뒤, [이 정책들은] 오랑캐에게 여러 번 번역되면서 조공하러 온 나라가 [무려] 일곱 나라나 되었다. 이것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존속하게 하고, 끊어진 제사를 지속하게 하는 군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존송하게 되었다.²⁵

상나라 왕 무정의 집권 초기에 “선왕의 도가 결손되고, 형법이 지켜지지 않아” 그의 통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을 실행한 덕분에, 상나라는 다시 강성해졌다. 나아가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봉양의 예의를 드러내서 밝히는 것(明養老)”으로, 이는 노인 봉양의 예의가 그 당시에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한대 사람들은 서백후(西伯侯) 희창(姬昌)이 노인봉양을 중시하여 현인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즐겨 거론하였는데, 『사기(史記)』의 「주본기(周本紀)」와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서백은 문왕(文王)이라고 불리며, 후직(后稷)과 공류(公劉)의 공적(業)을 이어받고, 고공(古公)과 공계(公季)의 법도를 정책으로 삼았다(則). [그는] 인을 돈독히 실행하고, 노인에게 공경하였으며,

²⁵ 劉向撰, 向宗魯校證, 『說苑校證』 卷1, 「君道」, 北京: 中華書局, 1987, p. 22. “高宗者, 武丁也, 高而宗之, 故號高宗. 成湯之後, 先王道缺, 刑法違犯, 桑穀俱生乎朝, 七日而大拱. 武丁召其相而問焉, 其相曰, ‘吾雖知之, 吾弗得言也. 聞諸祖己, 桑穀者野草也, 而生於朝, 意者國亡乎?’ 武丁恐駭, 飭身修行, 思先王之政, 興滅國, 繼絕世, 舉逸民, 明養老. 三年之後, 蠻夷重譯而朝者七國, 此之謂存亡繼絕之主, 是以高而尊之也.”

젊은이에게 자애로웠고, 현명한 아랫사람을 예우하였으니, 선비를 만나는 데 낮시간 동안 밥 먹을 겨를이 없어, 이 때문에 선비들은 그에게 많이 귀순하였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도 고죽(孤竹)에 있었으나, 서백이 노인봉양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 함께 그에게 귀순하였다. 태전(太顛), 공요(閔夭), 산의생(散宜生), 육자(鬻子), 신갑대부(辛甲大夫)의 무리도 모두 그에게 귀순하였다.

26

여상(呂尙)은 은둔한 선비(處士)이고, [동해(東海)] 바닷가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다. 주(周)나라 서백이 유리(羨里)에 구금될 때, 산의생과 공요는 미리 여상[의 현명함]을 알고 그를 불렀는데, 여상이 또한 “저는 서백이 현명하고, 노인봉양을 잘함을 들은 바 있으니, 어찌 그에게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세 사람은 서백을 위해 아름다운 여인과 기이한 보물을 구하고, 주왕(紂王)에게 헌납하여 서백을 구출하였다. [이리하여] 서백은 유리에서 탈출하고 자기의 제후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²⁷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백이와 숙제는 멀리 떨어진 고죽에 살다가 서백의 신하가 되었고,²⁸ 여상은 동쪽 바닷가에서 은거하다가 서백에게 귀순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백이 ‘노인봉양을 잘하는 것(善養老)’으로 거론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한 노인봉양, 즉 양로는 단순히 노인이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취한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공경을 중시하므로 나이가 많은 현자를 불러들여 관직을 준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상은 주(周)나라가 상나라를 멸망한 뒤, 주나라 초기의 정치적 실천 중에서 큰 활약을 펼친 사람

²⁶ 『史記』 卷4, 「周本紀」, 北京: 中華書局, 1982 第2版, p. 116. “西伯曰文王, 遵后稷, 公劉之業, 則古公, 公季之法, 篤仁, 敬老, 慈少. 禮下賢者, 日中不暇食以待士, 士以此多歸之. 伯夷, 叔齊在孤竹, 聞西伯善養老, 盍往歸之. 太顛, 閔夭, 散宜生, 鬻子, 辛甲大夫之徒皆往歸之.”

²⁷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p. 116. “呂尚處士, 隱海濱. 周西伯拘羨里, 散宜生, 閔夭素知而招呂尚. 呂尚亦曰, ‘吾聞西伯賢, 又善養老, 盍往焉?’ 三人者爲西伯求美女奇物, 獻之於紂, 以贖西伯. 西伯得以出, 反國.”

²⁸ 고죽에 관해서 『집해(集解)』에서는 응소(應劭)의 진술을 인용하여 “在遼西令支.” 라고 하였고, 『정의(正義)』는 「괄지지(括地志)」를 인용하여 “孤竹故城在平州盧龍縣南十二里, 殷時諸侯孤竹國也, 姓墨胎氏.” 라고 하였다.

이다. 그보다 일찍 공적을 남긴 노인 정치가로서 이윤(伊尹)이라는 인물을 거론할 수 있다. 이윤은 일찍이 재능을 지녔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상나라의 현명한 군주, 즉 탕왕을 만나고 나서야 그를 보좌하여 큰 공적을 세우게 되었다.²⁹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세대를 거쳐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사회계층에서 노인의 위상이 점차 강조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한대에서 작성된 역사기록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공경을 잃게 되는 것은 곧 정권의 몰락을 시사한다. 이에 관해 『설원』 「지무(指武)」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실려 있다.

문왕(文王)이 송(崇)나라를 토벌하려는 중에 먼저 선언을 하였다.
 “내가 듣기에 송나라의 제후 호(崇侯虎)는 부형(父兄)을 경멸하고, 장로(長老)를 공경하지 않으며, 옥사를 처리하는 데(聽獄) 적중하지 못하고, 재물을 분배하는 데 균등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힘을 다해도 옷과 먹을거리를 [적절하게]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장차 그를 토벌하려는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송나라를 토벌하는 것이다. [지금] 명령하건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함부로] 가옥을 파괴하지 말며, [함부로] 우물을 메우지 말고, [함부로] 벌목하지 말며, [함부로] 가축을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면 없이 사형에 처하겠다.” 송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항복을 청하였다.³⁰

여기에서 등장한 부형, 장로 등 표현은 모두 연장자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 노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주나라 문왕은 송나라 제후의 죄를 열거할 때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노인공경이야말로 주나라 사람이 지닌 장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나라가 최종적으로 송나라를 토벌하는 데 성공한 사실도 노인공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각주가 된 셈이

²⁹ 이윤의 소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진술 참조. 『後漢書』 卷28, 「馮衍傳」, 北京: 中華書局, 1965, P. 991, “伊摯豐下兌上, 色黑而短, 僂身而下聲, 年七十而不遇. 湯聞其賢, 設朝禮而見之, 摯乃說湯致於王道.”

³⁰ 『說苑』 卷15, 「指武」, “文王欲伐崇, 先宣言曰, ‘予聞崇侯虎, 蔑侮父兄, 不敬長老, 聽獄不中, 分財不均, 百姓力盡, 不得衣食, 予將來征之, 唯爲民乃伐崇, 令毋殺人, 毋壞室, 毋填井, 毋伐樹木, 毋動六畜, 有不如令者死無赦.’ 崇人聞之, 因請降.”

다.

『설원』의 편찬자 유향(劉向)과 『사기』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은 모두 서한(西漢) 시대의 사람이다. 그들이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작품 속에 수록하였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시대의 가치적 지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특히 한대 사람의 관념 속에서, 국가가 장차 멸망하는 과정에 있으면, 풍속이 점차 쇠퇴하고, 그중 노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중요한 표징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주나라가 일어서자, 소호(少昊)에 비어 있는 땅 곡부(曲阜)를 주나라 공자 백금(伯禽)에게 분봉하고, 그를 제후로 하여 주공(周公)의 제사를 주도하는 자로 삼았다. 그 땅의 백성은 성인(聖人)의 교화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자(孔子)는 “제(齊)나라의 [풍속이] 한번 변해서 노(魯)나라의 [풍속]에 이르고, 노나라의 [풍속]이 한번 변해서 도에 이르렀구나!”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노나라의 풍속이] 올바른 도에 가까움을 말한 것이다. [노나라 땅]은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에 가까이 있지만, 그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부추기며 그 짐을 대신 지어주었다. [그러다가] 풍속이 갈수록 야박해지자 연장자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젊은 사람과 서로 겸양하지 못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으니, 그래서 “노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수수와 사수 사이에 이처럼 말다툼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게 되었다.³¹

노나라는 성인의 교화를 계승한 지역으로서, 본래 풍속이 두터웠던 것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백성이 강을 건널 때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를 돌본다. 그러다가 후세에 이르러 풍속이 나빠짐에 따라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돌보지 않고, 연장자는 또한 그들을 책망하여 서로 간의 말다툼이 많아졌다. 인용문의 저자가 보기에, 노나라의 노인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실은 곧 노나라의 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의 무너짐은 곧 노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한대 사람에게는 진(秦)나라의 패망원인을 윤리적 교화의 측면에

³¹ 『漢書』 卷28, 「地理志下」, “周興, 以少昊之虛曲阜封周公子伯禽爲魯侯, 以爲周公主. 其民有聖人之教化, 故孔子曰, ‘齊一變至於魯, 魯一變至於道.’, 言近正也. 瀕洙泗之水, 其民涉度, 幼者扶老而代其任. 俗既益薄, 長老不自安, 與幼少相讓, 故曰, ‘魯道衰, 洙泗之間斷斷如也.’ ”

입각하여 규명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르면 진나라의 멸망은 윤리적인 면에서의 실패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그중에서 노인공경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저열한 풍속이 자주 거론된다. 가산(賈山)은 진나라의 멸망원인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나라 황제는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어째서인가? 천하에 감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감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봉양의 의로움을 저버리고, 보필하는 신하를 없애며, 간언을 드리는 자를 죽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형벌을 실행하여 [잘잘못을] 질책하는 자를 퇴치하고, 충직하게 간언을 드리는 자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아첨하는 말을 화려하게 하고(道諛嬖), 얼굴빛을 구차하게 영합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어], 그의 덕이 요임금과 순임금(堯舜)보다 현명하다고 하고, 그의 공적이 탕왕과 무왕(湯武)보다 뛰어나다고 하니, 천하가 이미 무너져도 그에게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 『시경(詩經)』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벌을 받을까 걱정해서 그러하니, 말을 들으면 상대하고, 험뜯게 되면 물러선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³²

가의(賈誼)도 유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다.

상앙(商鞅)은 예(禮)에 [기반한] 의로움을 저버리고 인에 [기반한] 은혜로움을 버려서 오직 한 마음으로(并心) [변법을 통해] 나아가는 데만 힘을 쏟아부었으니, 2년이 지나자 진나라의 풍속은 날로 쇠퇴해졌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 [중에서] 집이 부유하면 자식은 성년이 되자마자 분가(分家)하고, 집이 가난하면 자식은 성년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데릴사위가 된다(出贅). 아버지에게 곰방메와 호미(耰鉏)를 빌려주는 [정도로] 덕이 있는 듯한 얼굴빛을 내고, 어머니가 쓰레받기와 빗자루(箕帚)를 빌려쓰는 정도로

³² 『漢書』 卷51, 「賈山傳」, 北京: 中華書局, 1962, p. 2334, “秦皇帝居滅絕之中而不自知者何也?”

天下莫敢告也。其所以莫敢告者何也? 亡養老之義, 亡輔弼之臣, 亡進諫之士, 縱恣行誅, 退諱謗之人, 殺直諫之士, 是以道諛嬖合苟容, 比其德則賢於堯舜, 課其功則賢於湯武, 天下已潰而莫之告也。

詩曰, ‘匪言不能, 胡此畏忌, 聽言則對, 譖言則退.’ , 此之謂也。”

꾸짖는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시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뻗어 앉으며, 고부 사이에서 기분이 나쁘면 입술을 뒤집어 서로 헐뜯는다. 그들이 자식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은 이익을 위함이니, 금수와 같지 않은 바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상왕은] 한 마음으로 시세(時勢)에 집중하는 것이 육국(六國)을 무너뜨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적이 이루어지고 추구하는 바를 얻었는데도, 시종 [그것이] 염치와 부끄러움(廉愧)의 절도, 인의의 두터움에 어긋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겸병하는 변법을 믿어, 나아가 성취하는 공적을 이루었으나, 천하는 크게 무너졌다. [이리하여] 세력이 큰 무리는 작은 무리를 가리고, 총명한 무리는 어리석은 무리를 속이며, 용맹한 무리는 겁많은 무리를 위압하고, 건장한 무리는 노쇠한 무리를 업신여기니(凌), 그 어지러움은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³³

가산에 따르면 진나라 사람에게에는 '노인봉양의 의로움(養老之意)'이 없고, 이는 곧 심각한 윤리적 결손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가의의 말, 즉 "아버지에게 곰방메와 호미를 빌려주는 [정도로] 덕이 있는 듯한 얼굴빛을 내고, 어머니가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빌려쓰는 정도로 꾸짖는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시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뻗어 앉으며, 고부 사이에서 기분이 나쁘면 입술을 뒤집어 서로 헐뜯는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가족 내부에서 연장자에 대한 젊은 사람의 존경이 사라진 실태를 겨냥하여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건장한 무리는 노쇠한 무리를 업신여기는 것(壯凌衰)"은 사회적으로 노인의 무리가 약자로 전락하여 학대의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리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풍속이 쇠퇴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 실태를 반영하고, 그러한 실태가 또한 진나라의 멸망과 직결된다는 것이 한대 사상가들의 주된 생각이다. 이처럼 한대 초기에서는 진나라의 과오를 반성하는(過秦) 사조가 팽배하였는데, 그중 '연장자를 거만하게 대하고 노쇠한 자를 업신여기는(倨老凌衰)' 죄목이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

³³ 『漢書』 卷48, 「賈誼傳」, p. 2244, “商君遺禮義, 棄仁恩, 并心於進取, 行之二歲, 秦俗日敗. 故秦人家富子壯則出分, 家貧子壯則出贅. 借父耰鉏, 慮有德色. 母取箕疇, 立而諍語. 抱哺其子, 與公併倨. 婦姑不相說, 則反唇而相稽. 其慈子耆利, 不同禽獸者亡幾耳. 然并心而赴時, 猶曰蹶六國, 兼天下. 功成求得矣, 終不知反廉愧之節, 仁義之厚. 信并兼之法, 遂進取之業, 天下大敗. 衆掩寡, 智欺愚, 勇威怯, 壯陵衰, 其亂至矣.”

은 논의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교훈을 이어받아, 노인봉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노인에 대한 공경/천시가 화하/오랑캐 문화의 큰 차이이다.

한대 사람의 관념 속에서 중원의 화하문명과 변방의 오랑캐 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가 두 문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거론된 경우가 많다. 『사기』 「흉노열전(匈奴列傳)」에서는 오랑캐의 사회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가 있다.

[흉노의 무리에게] 군왕이 있는 이래, 모두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가축을 옷으로 하며, 금수의 털로 만든 외투를 걸쳤다. 젊은 사람은 살찌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인은 그 나머지를 먹었다. 젊고 건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늙고 쇠약한 자를 가볍게 여겼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후실을 처로 삼았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처를 후실로 삼았다. 그들의 풍속에 이름은 있으나, [그것을 직접 부르지 않은] 휘(諱)가 없고, 성씨(姓)와 표자(字)도 없다.³⁴

이 말은 서한의 역사가가 흉노의 풍속을 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젊은 사람은 살찌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인은 그 나머지를 먹었다.”라는 말이 명시하듯이, 흉노의 문화에서 노인에게 주어진 식사순서와 음식의 질은 모두 젊은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화하문명에서는 노인에게 일찍이 음식향유의 우선권이 주어졌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늙이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곡식을 먹게 하고, 예순이 되는 사람에게는 상시적으로 고기를 마련해주며, 일흔이 되는 사람에게는 끼니마다 양질의 반찬 두 종류를 준비해주고, 여든이 되는 사람에게는 상시적으로 진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흔이 되는 사람은 [보통] 식사할 때 침실에서 나올 수 없지만, 산책할 때 보살피는 사람(從)은 양질의 음식을 수시로 들고 함께 하면 된다.”³⁵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노인은 연세가 많을수

³⁴ 『史記』 卷110, 「匈奴列傳」, p. 2879, “自君王以下, 咸食畜肉, 衣其皮革, 被旃裘. 壯者食肥美, 老者食其餘. 貴壯健, 賤老弱. 父死, 妻其後母. 兄弟死, 皆取其妻妻之. 其俗有名不諱, 而無姓字.”

³⁵ 『禮記』, 「王制」, “五十異粢, 六十宿肉, 七十貳膳, 八十常珍. 九十, 飲食不離寢, 膳飲從於游

록 더욱 우월한 음식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먹을거리는 고기가 귀하고, 옷의 재질은 비단이 좋기 때문에, 『예기』 「왕제」에는 “예순이 되는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를 채우기 힘들고, 일흔이 되는 사람은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³⁶라는 말이 있게 되고, 맹자(孟子)는 “5묘의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으면, 신이 된 자는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닭과 돼지, 개와 큰 돼지를 기르되 새끼 칠 때를 놓치지 않으면, 일흔이 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³⁷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관념과 풍속은 한대 사람에게도 계승되었다. 문제(文帝) 원년 삼월(元年三月)에 내려진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노인은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를 채우기 힘들다. 지금은 연초이니, 때에 맞게 사람을 시켜 연장자와 노인을 위문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베와 비단, 술과 고기의 하사도 없으면, 장차 무엇으로 천하의 자손들로 하여금 효를 다하여 그 친족을 봉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³⁸ 그리고 소제(昭帝) 시원륙년(始元六年)에 있었던 염철(鹽鐵) 회의에서 문학(文學)은 다시 한번 “노인은 고기가 아니면 배를 채우기 힘들고,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노인의 복지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³⁹ 그러자 재상 사(史)는 “일흔이 되는 노인(耄)은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를 채우기 힘들다. 그래서 효자는 달고 연한 음식으로 그의 입을 봉양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으로 그의 몸을 봉양한다. 증자(曾子)가 [아버이] 증석(曾皙)을 봉양함에 있어서 [식사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다. [그러나] 예모(禮帽, 端)와 예복(禮服, 纁)이 없으면 비록 공서적(公西赤)일지라도 용모를 단정하게 할 수 없고, 맛있고 양질의 음식이 없으면 비록 민자건(閔子騫)과 증자일지라도 봉양의 [의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⁴⁰라고 말하면서, “예의규범은 넘쳐나지만, 봉

可也.”

³⁶ 『禮記』, 「王制」, “六十非肉不飽, 七十非帛不暖.”

³⁷ 焦循撰, 沈文倬點校, 『孟子正義』, 「梁惠王章句上」, 北京: 中華書局, 1987, p. 58,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³⁸ 『漢書』 卷4, 「文帝紀」, p. 113, “老者非帛不煖, 非肉不飽. 今歲首, 不時使人存問長老, 又無布帛酒肉之賜, 將何以佐天下子孫孝養其親?”

³⁹ 王利器校注, 『鹽鐵論校注』 卷3, 「未通」, 北京: 中華書局, 2015 第2版, p. 213. 참조.

⁴⁰ 王利器校注, 『鹽鐵論校注』 卷5, 「孝養」, p. 340, “耄, 食非肉不飽, 衣非帛不暖. 故孝子曰甘毳以養口, 輕煖以養體. 曾子養曾皙, 必有酒肉. 無端纁, 雖公西赤不能以爲容. 無肴膳, 雖閔, 曾不能以卒養.”

양하는 [의지가] 부족하다(禮有餘而養不足).”라는 문헌들의 논지를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역림(易林)』에는 “나라의 남쪽에 물자가 풍부하여 찰기장과 메기장, 단술이 있으니, 노인에게 음식으로 드릴 수 있고, 나의 좋은 친구를 즐겁게 할 수 있네.”⁴¹라는 말도 있다. 비록 그 당시 사회에 “살아 있을 때는 봉양함을 극진히 하지 않고, 죽은 뒤에야 [후장(厚葬)의] 상례를 추앙하는(生不極養, 死乃崇喪)” 누습이 있지만,⁴² 노인봉양의 윤리가 이미 일반적인 도덕 원칙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

한편, 『한서』 「흉노전(匈奴傳)」에는 문제 시기에 사신과 흉노에 귀순한 중행열(中行說) 사이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한나라와 흉노의 풍속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한나라 사신 중 어떤 사람은 흉노의 풍속이 연장자를 천시한다고 말하자, 중행열이 그를 추궁하여 말하였다. “한나라의 풍속에 따르면 변방을 지키고 군대에 나가 전쟁을 치르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부모는 스스로 따뜻하고 풍성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지 않는가?” 한나라 사신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중행열은 또 말하였다. “흉노는 분명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 치르는 것을 일삼으니, 늙고 쇠약한 자는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배되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젊고 건장한 사람에게 주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한다. 이처럼 하면 아버지와 자식은 각각 서로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데, 어찌 흉노가 연장자를 천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⁴³

이 구절은 노인봉양에 관한 한대 사람과 흉노의 관념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역사적 기록이다. 한나라 사신이 보기에, 노인을 천시하는 일은 흉노의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풍속이다. 이에 따르면 노인이 육체적으로 쇠약한 이유로 천시받고, 물자분배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은 인륜적인 차원

⁴¹ (漢) 焦延壽著, (元) 佚名注, 馬新欽點校, 『易林』 卷11, 「夬・離」, 南京: 鳳凰出版社, 2017, p. 571, “南國盛茂, 黍稷醴酒. 可以享老, 樂以嘉友.”

⁴² 王符著, 汪繼培箋, 彭鐸校正, 『潜夫論箋校正』 卷3, 「浮侈」, 北京: 中華書局, 2014 第2版, p. 179-180. 참조.

⁴³ 『漢書』 卷94, 「匈奴傳」, “漢使或言匈奴俗賤老, 中行說窮漢使曰, ‘而漢俗屯戍從軍當發者, 其親豈不自奪溫厚肥美齎送飲食行者乎?’ 漢使曰, ‘然.’ 說曰, ‘匈奴明以攻戰爲事, 老弱不能鬥, 故以其肥美飲食壯健以自衛, 如此父子各得相保, 何以言匈奴輕老也?’ ”

에서의 도덕 규범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중행열의 반박에서 알 수 있듯이, 건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은 유목 민족이 처한 경제적-생활적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합리성을 지닌 것이다.

중원의 화하민족과 사방의 이민족 간 노인봉양 관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관한 문제는 더욱 깊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가 주목한 것은 화하민족의 역사기록에서 그러한 차이가 실제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는 군주를 옹립하고, 관직 체계를 적합하게 세워서 사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방 오랑캐의 풍속을 거론한 부분이 있다.

북쪽 바닷가의 동쪽에 이(夷)와 예(穢)라는 고을이 있고, [거기에는] 대해(大解), 릉어(陵魚), 기(其), 룽야(鹿野) 요산(搖山), 양도(揚島), 대인(大人) 등 부족이 살고 있으나, 대부분 군주가 없다. 양주(揚州)와 한수(漢水) 남쪽에 [옛날] 백월(百越)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폐개제(敝凱諸), 부풍(夫風), 여미(餘靡) 등 땅이 있고, 박루(縛婁), 양우(陽禺), 환두(驩兜) 등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군주가 없다. 저족(氐)과 강족(羌)이 사는 호당(呼唐)과 리수(離水)의 서쪽에 북인(僂人)과 야인(野人)이 사는 편착(篇箝)이라는 강이 있고, [거기에는] 주인(舟人), 송룡(送龍), 돌인(突人)의 고을이 있는데, 대부분 군주가 없다. 안문산(雁門)의 북쪽에 응준(鷹隼), 소지(所鷺), 수규(須窺) 등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도철(饕餮), 궁기(窮奇) 등 부족이 사는 땅, 숙역(叔逆)과 담이(僇耳)라는 부족이 사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군주가 없다. 이 네 곳은 모두 군주가 없는 곳이니, 그 백성은 고라니와 사슴 등 금수와 같고,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사역하고, 연장자는 건장한 젊은이를 두려워한다. 힘이 있는 사람을 뛰어나다고 여기고, 포악하고 거만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여겨,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서로 해치며, 쉬는 때가 없으니, [이런 모습으로] 그 동족끼리 사람들은 삶을 다한다.⁴⁴

⁴⁴ 許維通撰, 梁運華整理, 『呂氏春秋集釋』 卷20, 「恃君覽」, 北京: 中華書局, 2009, pp. 545-546,

“非濱之東，夷，穢之鄉，大解，陵魚，其，鹿野，搖山，揚島，大人之居，多無君。揚，漢之南，百越之際，敝凱諸，夫風，餘靡之地，縛婁，陽禺，驩兜之國，多無君。氐，羌，呼唐，離水之西，僂人，野人，篇箝之川，舟人，送龍，突人之鄉，多無君。雁門之北，鷹隼，所鷺，須窺之國，饕餮，窮奇之地，叔逆之所，僇耳之居，多無君。此四方之無君者也。其民麋鹿禽獸，少者使長，長者畏壯，

이른바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사역하고, 연장자는 건장한 젊은이를 두려워하는” 풍속은 노인을 공경하는 중원의 풍속과 확연히 다르다. 진한(秦漢) 시대 역사가의 서술에 따르면 흉노뿐만 아니라, 오환(烏桓)을 비롯한 서역의 여러 나라에도 노인공경을 실행하지 않은 사악한 풍속이 있었다. 동한(東漢) 화제(和帝) 때, ‘중원과 동떨어진 지역에 오래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久在絕域, 年老思土)’ 반초(班超)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거기에 “오랑캐의 풍속은 건장한 사람을 경외하고 노인을 업신여긴다(蠻夷之俗, 畏壯侮老).”라는 진술이 실려 있다. 그리고 반초의 여동생 반소(班昭)의 상소에도 “오랑캐의 본성은 이치를 거역하고 노인을 업신여긴다(蠻夷之性, 悖逆侮老).”라는 말이 적혀 있다.⁴⁵ 또한 『후한서(後漢書)』 「오환전(烏桓傳)」은 “젊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늙은 사람을 천시한다(貴少而賤老).”라는 표현이 있는데,⁴⁶ 안사고(顔師古)는 이에 대해 “이는 그들의 풍속이 젊고 건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장자와 노인을 천시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붙였다. 마지막으로 동한 말, 흉노에게 남쪽으로 납치된 채염(蔡琰)은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에서 “흉노의 풍속은 늙고 쇠약한 자를 천시하고, 젊고 건장한 자를 아름답다고 여기네.”라는 말로 흉노의 풍속을 묘사하였다.⁴⁷ 이러한 묘사는 실제 생활경험에 기반한 것이므로, 사학가들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흉노에게 노인을 천시하는 풍속이 장기간에 걸쳐 실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안문산 북쪽에 사는 오랑캐(狄)는 곡물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고,
늙은 사람을 천시하고 젊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의] 풍속은 기력을 숭상하고, 활을 놓지 않으며, 말의 굴레를 풀지 않

有力者賢，暴傲者尊，日夜相殘，無時休息，以盡其類。”

⁴⁵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pp. 1583-1584. 참조.

⁴⁶ 『後漢書』 卷90, 「烏桓傳」, p. 2979. 참조. 유사한 표현은 『三國志』 卷30, 「魏書・烏丸傳」, 北京: 中華書局, 1982 第2版, p. 832에도 등장한다.

⁴⁷ (宋) 郭茂倩編, 『樂府詩集』 卷59, 「琴曲歌辭三・胡笳十八拍・第七拍」, 北京: 中華書局, 1979, p. 862, “俗賤老弱兮少壯爲美.”

으니, [유목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⁴⁸

여기에서 [유목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便之)'이라는 표현은 사회풍속의 형성에 대한 자연환경과 경제적인 특징이 지닌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앞서 논의한 중행열의 논지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화하의 관념 속에서 '노인을 천시함'은 문명과 인륜에 대한 거역으로 간주된다. 한무제(漢武帝)가 황태자 유단(劉丹)을 연왕(燕王)으로 책봉한 책서에는 "훈족씨(葷粥氏)는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집에] 침범하여 약탈하는 짓을 자주 하고, 더욱이 간사한 계략으로 변방을 해친다."⁴⁹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는 곧 한나라의 속국인 연나라가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변방 흉노에 대해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특히 '노인을 학대한다(虐老)'에 관해, 『색은(索隱)』은 앞서 거론한 「흉노열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그 나라는 건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천시하니, 건장한 사람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인은 그 나머지를 먹는다(其國貴壯賤老, 壯者食肥美, 老者食其餘)."라는 해석을 남겼다. 그리고 한무제는 심지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누습을 흉노토벌의 이유 중 하나로 삼았는데, 이에 관해 『한서』위청전(衛靑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제가 말하였다. "흉노는 하늘의 이치(天理)를 거역하고, 인간의 윤리를 어지럽히며, 연장자를 포악하게 대하고 늙은 사람을 학대하며, 강도와 도둑질을 힘쓰는 바로 삼고, 여타 오랑캐들에게 사기를 치며, 음모를 꾸며 병사를 징집하여, 여러 번 변방에 해로운 짓을 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장수를 보내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자 한다."⁵⁰

이른바 "연장자를 포악하게 대하고 늙은 사람을 학대한다(暴長虐老)."라는 말에 대해, 안사고는 "이는 그들의 풍속이 젊고 건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장자와 노인을 천시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붙였다. 실제

⁴⁸ 『淮南子集釋』 卷1, 「原道訓」, 北京: 中華書局, 1998, p. 39, “雁門之北, 北狄不穀食, 賤長貴壯, 俗尚氣力. 人不馳弓, 馬不解勒, 便之也.”

⁴⁹ 『史記』 卷60, 「三王世家」, p. 2112, “葷粥氏虐老獸心, 侵犯寇盜, 加以姦巧邊萌.”

⁵⁰ 『漢書』 卷55, 「衛靑傳」, p. 2473, “上曰, ‘匈奴逆天理, 亂人倫, 暴長虐老, 以盜竊爲務, 行詐諸蠻夷, 造謀籍兵, 數爲邊害. 故興師遣將, 以征厥罪.’ ”

로 한나라와 흉노의 갈등은 본래 이익을 둘러싼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지, 풍속과 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 조정은 “연장자를 포악하게 대하고 늙은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토벌의 이유 중 하나로 삼아, 그것을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逆天理, 亂人倫)’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는 관념을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적 위상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은 한나라가 대변한 화하문명이 흉노의 풍속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지녔고, 그중 중요한 징표로 거론되는 점이 바로 노인봉양과 공경에 대한 규범의 유무이다.

3. 천성의 유순함: 조선의 전통과 중원 노인봉양 문화의 합치 계기

앞서 서술하였듯이, 한대 사람은 흔히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사역하고, 연장자는 건장한 젊은이를 두려워한다.”, “오랑캐의 풍속은 건장한 사람을 경외하고 노인을 업신여긴다.” 등 말로 화하문명권 밖에 있는 오랑캐 민족의 노인봉양 윤리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독 동북쪽에 있는 조선민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지녔는데, 이에 관해 『한서』 「지리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현토(玄菟)와 악랑(樂浪) [등 군(郡)은] 무제(武帝) 때 설치된 것인데, 모두 조선, 예맥(濊貊), 구려(句驪)의 오랑캐가 사는 곳이다. 은(殷)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箕子)는 조선에 가서 예의, 경작의 방법, 누에를 길러 옷감을 짜는 방법 등으로 그 백성을 가르쳤다. 악랑의 조선 백성에게는 여덟 조목의 금령이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즉시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 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물로 [죄를] 갚아야 하며, 도둑질을 한 자 중에서 남자는 종이 되고, 여자는 노비가 되는데, 만약 스스로 속바치려면 한 사람당 오십만을 내야 한다. 이리하여 비록 [죄를] 면하게 되어 백성이 되지만, 풍속은 여전히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시집이나 장가갈 때 무엇을 팔고 팔리는 일이 없으므로(無所讎), 백성은 종래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과 창문을 잠기는 일이 없으며, 여인은 정절이 신실하여 음란하거나 편벽되지 않는다.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은 변두(鑊豆)를 먹을거리로 삼고, 도읍에 [사는 사람들은] 자못 관리나 내군(內郡)의 상인을

본받아 항상 그릇으로 음식을 담는다. 군은 최초로 요동(遼東) 지역에서 관리를 뽑았는데, 관리는 백성들이 문을 잠그거나 재물을 숨기는 일이 없음을 보고, 상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밤이 되면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풍속은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야박해졌다. [그래서] 지금 금령을 여기는 일이 많아져, [금령은 여덟 조목에서] 육십여 조목에 달았다. [이렇게 보면] 정말 귀하도다, [이전에 있었던] 인한 현인의 교화여! 그럼에도 동쪽 오랑캐는 [본래] 천성이 유순하고, [남쪽, 서쪽, 북쪽] 세 지방 밖에 있는 오랑캐와 다르다. [그러니]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개탄하여 뗏목을 바다에 띄우는 일을 상상하면서, 구이(九夷)의 땅에 정착하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그곳의 백성에게 천성의 유순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⁵¹

『한서』의 작가 반고(班固)는 동한 전기의 사람이다. 그래서 위 인용문은 동한 전기에 걸친 조선민족에 대한 인식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풍속은 소박하고 두터우며, 고대의 유풍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라고 칭할 수 있다. 나아가 반고가 보기에, 이와 같이 잘 다듬어진 풍속의 형성에는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공존한다. 그중 외부적인 원인은 곧 ‘인한 현인에 따른 교화(仁賢之化)’, 즉 은주(殷周) 교체기에 있었던 기자의 교화이고, 내부적인 원인은 곧 “동쪽 오랑캐는 [본래] 천성이 유순하고, [남쪽, 서쪽, 북쪽] 세 지방 밖에 있는 오랑캐와 다르다.”라는 말에서 시사되듯이, 조선민족의 타고난 성격 자체가 유순하여 선(善)에 가깝다는 것이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는 공자와 자로(子路)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바다에 띄우려고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도 유(由)일 것인가?”⁵²라는 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⁵¹ 『漢書』 卷28, 「地理志下」, p. 1658,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濊貉, 句驪蠻夷.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其田民飲食以簋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浸多, 至六十餘條. 可貴哉, 仁賢之化也!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 有以也夫!”

⁵² 『論語』, 「公冶長」,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

반고가 공자의 말을 조선의 풍속에 대한 동경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中庸」에 나온 공자의 말, 즉 “너그러움과 유순함으로써 가르치고, 무도(無道)함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남방(南方)의 강함이니, 군자는 이런 곳에 머문다.”⁵³라는 말을 참고할 수가 있다. 실제로 조선의 지리적 위치는 남쪽이 아니다. 그러나 너그러움과 유순함 등 민족의 성격은 공자가 동경한 군자의 나라가 지닌 특징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절로 인해, 반고가 공자의 말을 조선민족의 풍속에 대한 동경으로 풀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범엽(范曄)도 『후한서』「동이전(東夷傳)」에서 같은 이야기를 인용한 바가 있다.

「왕제」에 이르기를 “동쪽의 [땅을] ‘이’라고 한다.” 이는 뿌리(柢)이니, 인하고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만물이 땅을 뿌리 삼아 자라남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천성이 유순하여 도로써 통제하기 쉬우므로, 군자가 있게 되고 죽지 않은(도가 쇠퇴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이는 아홉 부족이 있는데, 건이(畎夷) 우이(于夷), 방이(方夷), 황이(黃夷), 백이(白夷), 적이(赤夷), 현이(玄夷), 풍이(風夷), 양이(陽夷)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자는 구이에 머물고 싶다고 하였다.⁵⁴

「동이전」에 실린 “그래서 공자는 구이에 머물고 싶다고 하였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조선을 포함한 동이 민족의 유순한 성격을 논증한 것이다. 주어진 인용문에서 “이는 뿌리이니, 인하고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만물이 땅을 뿌리 삼아 자라남을 말한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예기』「왕제」에 나온 “동쪽의 [땅을] ‘이’라고 한다.”라는 진술을 해석하였는데, 당(唐)의 이현(李賢)은 이에 관해 “그러한 일은 『풍속통(風俗通)』에서 찾아볼 수 있다(事見風俗通).”라고 주석을 붙였다. 그래서 「동이전」의 진술은 실제로 동한 말 응소(應劭)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이 조목에 관한 자료가 유실된 까닭에, 현존의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요컨대 『한서』「지리지」와 『후한서』「동이열전」의 기술에 따르면 기자가 살았던 은주시기부터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春秋時代)까지, 그리고 악랑을 비롯

⁵³ 『禮記』, 「中庸」, “寬柔以教, 不報無道, 南方之強也, 君子居之.”

⁵⁴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p. 2807, “王制云, ‘東方曰夷.’ 夷者, 柢也, 言仁而好生, 萬物柢地而出.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 不死之國焉. 夷有九種, 曰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故孔子欲居九夷也.”

한 군이 설치된 서한 중엽부터 반고가 『한서』를 수정하고 편찬한 동한 전기까지, 나아가 응소가 『풍속통의』를 저술한 동한 말기부터 범엽이 『후한서』를 편저한 남북조(南北朝)시기까지, 안사고가 『한서』를, 이현이 『후한서』를 주석한 당대까지 비록 조선은 동쪽 모서리에 위치하여 있지만, 시종 예의의 나라로서 중원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 말하자면, 『풍속통의』와 『후한서』는 모두 “인하고 생명을 아낀다(仁而好生).”라는 표현으로 ‘인’의 의미를 풀이하여, 조선의 민족적 특징을 “천성이 유순하여 도로써 통제하기 쉽다(天性柔順, 易以道御).”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아닌 조선의 민족적 특징을 ‘인’의 차원으로 승격한 것이다. 유가의 관념 속에서 인은 선한 덕목의 우두머리이고, 효는 다양한 실천의 바람직한 근원이다. 그래서 인을 특징으로 한 조선의 민족성에는 유가가 강조한 효에 따른 봉양문화와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계기가 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조선민족이 고유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유가의 문화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깊이 있는 노인공경 및 봉양의 문화를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

4. 한대 노인봉양 문화의 한반도 전파

앞선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원지역의 예의문화는 한대 이전부터 이미 한반도에 전파된 바가 있다. 그리고 진나라와 한나라 같은 통일국가의 형성, 한사군의 설치, 한대 유가사상에 기반한 가치 관념의 통일 등 요인은 노인봉양 문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였다.

유가의 경전과 역사서는 한대 노인봉양 문화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이다. 한반도에서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노인봉양의 교육을 실행한 바가 있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太學), 지방에 국당(局堂)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오경삼사(五經三史)를 교재로 삼아 가르쳤다. 여기에서 오경은 『시경(詩經)』, 『상서(尙書)』, 『주역(周易)』, 『춘추(春秋)』, 『예기』를 의미하고, 삼사는 『사기』, 『한서』, 『동관한기(東觀漢記)』를 가리키는데, 이 문헌들에는 효와 노인봉양에 관한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신라는 특히 『논어』와 『효경(孝經)』을 중시하였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788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 처음으로 독서삼품(讀書三品)을 정하여 관직에 나설 수 있도록

록 하였다(出身).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예기』 『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에 통달하는 동시에 『논어』와 『효경』에 밝은 사람을 상품으로 삼았고, 『곡례(曲禮)』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을 중품으로 삼았으며, 『곡례』와 『효경』을 읽은 사람을 하품으로 삼았다. 만약 오경·삼사·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에 모두 통달한 사람이라면 기정 절차를 넘어 그를 등용하였다. 이전에 활쏘기만으로 인재를 선발하였으나, 이때 이르러 개정되었다.⁵⁵

『논어』와 『효경』은 유가의 경전 중에서 효도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효경』은 효도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효는 시작과 끝이 없고, [효를 행함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⁵⁶라고 주장하였다. 독서삼품이 이들을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 제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집권자는 효행과 노인봉양의 교육을 높이 받들어 권면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실제로 이러한 경전이 한반도에 전입된 시기는 한대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논어』를 예시로, 20세기 90년대 조선 평양의 정백동(貞柏洞)에서 『논어』의 죽간이 총 39매 출토하였다. 그중 31매가 「선진편(先進篇)」의 내용이고, 8매가 「안연편(顏淵篇)」의 내용인데, 모두 서한 초기의 사본으로 추정된다.⁵⁷ 나아가 이러한 죽간에 적힌 경전적인 내용은 그 당시 한나라 관리와 백성의 일상 언행, 사회윤리 등을 규범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신라의 풍속과 가치관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8

또한 한대는 효로써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효자도(孝子圖)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효자도는 화상석(畫像石)에 그려진 경우가 많지만, 벽화나 특정 기물에서도 가끔 보인다. 1931년 평양 남정리(南井里)에 있는 동한 악랑군 왕우묘(王盱墓)에서 채색 칠화(漆畵)가 출토하였는데, 그 헐(篋)에는 정란(丁蘭), 형거(邢渠), 위탕

⁵⁵ 金富軾,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元聖王」, 韓國首爾大學藏朝鮮英祖年間刊本, “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⁵⁶ 『孝經』, 「庶人」, “故自天子至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 未之有也.”

⁵⁷ 윤용구, 「평양 출토 竹簡 『論語』의 계통과 성격」, 『木簡과 文字』 27, 한국목간학회, 2022.

⁵⁸ 翟金明, 『文本的力量: 基於朝鮮漢籍中<史記><漢書>資料的研究』,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22, 참조.

(魏湯), 원곡(原穀), 이선(李善) 등 효자의 효행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효도 관념과 그것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이 이미 현지에서 어느 정도 유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악랑 칠화의 협에는 '상산사호(商山四皓)'의 그림이 있다는 것이다. 서한이 처음 대륙을 통일할 때, 종남산(終南山)에 은거한 네 명의 노인, 상산사호는 황태자 유영(劉盈)을 보좌하여 지위를 공고히 하고, 한나라 초기의 정치적 국면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상산사호의 이야기는 항상 제왕이 노인을 공경하는 전범적인 사례로 전파되었고, 역대의 회화와 조각 작품이 선호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을 보면, 그 당시의 상산사호는 머리를 묶은 채 관을 쓰고 있으며, 수염과 눈썹도 모두 검은색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다른 한쪽에 있는 백이와 숙제의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상산사호와 같은 열에 또 한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그 제목은 "효혜제(孝惠帝)"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 그림은 상산사호가 혜제(惠帝)를 보좌하여 황태자의 지위를 굳건히 한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 그림은 기존의 상산사호에 관한 가장 이른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서적과 회화 이외에도 한대의 노인봉양 문화는 '제도'의 형식으로 한반도에서 실행된 바가 있다. 한대의 고을 관료체계에 삼로(三老)라는 직책이 있다. 이 직책은 연세가 쉰 이상이고, "수양된 덕행이 있으며, 일반 사람들을 이끌어 선행을 할 수 있는(有修行, 能帥衆爲善)" 사람이 담당한다.⁶⁰ 그리고 고을에는 고을의 삼로가 있고, 현(縣)에는 현의 삼로가 있으며, 군에는 군의 삼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관리를 도와 백성을 교화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후한서』 「왕경전(王景傳)」의 기록에 따르면 동한 시기 악랑의 유명한 치수 전문가, 즉 왕경의 아버지 왕굉(王閎)은 양한 교체기에 악랑군에서 군의 삼로 직책을 맡은 바 있다.⁶¹ 또한 국가가 일흔 이상의 노인에게 구장(鳩杖)을 선물하는 왕장제(王杖制), 아흔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한 양의 죽과 쌀을 배분하는 수육법 등 한나라의 노인봉양 제도도 한반도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대에서 노인봉양의 문화는 노인이라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여뿐만 아니라, 국가 및 민족의 운명과 연관되는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한대 사람의 관념 속에서 왕

⁵⁹ 鄺文玲, 「“商山四皓”形象的塑造與演變」, 『形象史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3, 참조.

⁶⁰ 『漢書』 卷1, 「高帝紀」, p. 33. 참조.

⁶¹ 『後漢書』 卷76, 「循吏列傳・王景」, p. 2464. 참조.

조의 성쇠, 풍속의 미추 등은 모두 노인봉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의 생활실태는 사회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노인봉양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교화를 추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스림의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로 설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노인봉양 문화는 조선민족이 품부받은 '인'의 성격적 특징과 맞물려 있다. 그러한 까닭에, 현대의 노인봉양 문화는 고대의 한반도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전파되었고, 천여 년의 역사적 비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명한 특징을 지닌 동아시아의 대표문화로 성장하였다. 노령화가 심각하게 가속화되는 오늘날, 이러한 노인봉양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추진 작업은 노령화 위기에 직면하는 세계를 향해 동아시아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